

올라의 참된 의미

장황한 수사(修辭)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복잡다단한 이 시대의 특성을 한단어로 표현하기에 아마도 ‘분주’(奔走)보다 제 격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기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분주는 사전적 의미에서 동사적으로는 “몹시 바쁘게 뛰어다니다”로, 형용사적으로는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잡다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고요한 내면적 성찰을 통한 풍요로운 정신적 삶의 추구보다도, 무엇이든 신속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삶의 실질(實質)에 부합할 수 있는 가시적 편익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컨대 다림줄을 내려 하나하나 싹고 다듬어 지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의 한옥보다도, 널따란 콘크리트 블록으로 쿵광쿵광 짜 맞춰 하루해에 세운 마천루(摩天樓)를 보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風景)소리와 철따라 바뀌는 꽃내음은 제아무리 온 신경을 집중해도 이미

무더질 대로 무더진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끼기가 그다지 쉽지 않고, 오히려 휴대폰이나 MP3에 꽂은 리시버의 음향(音響)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분주에 휩싸여 있는 중에, 하루를 이틀로 쪼개어 생활하는 것보다, 되레 이틀을 하루에 담아 생활하는 것에 보다 익숙히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분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중심에 분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주는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긴요했던 어제의 것들을 오늘에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더했던 편익을 내일의 거추장스런 불편으로 내동댕이쳐 이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게 하는 고약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어릴 적 추억도 분주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깅배기 속에 현 양말을 덧대어 신은 추석빔의 흰색운동화 그것도 하루해가 지나기도 전에 개울가 도랑에 떠내려 보내고 죽죽 울던 기억, 논둑 밑 부엌에 웅기종기 빠리 틀고 구부려 앉아 툭툭 찌리 빗자루에 불을 놓아 서리태를 그슬려 볶아 먹던 친구들 하나같이 주둥이 언저리에 잿빛 수염을 무치고는 꼴좋다며 서로서로 죽어라죽어라 키득키득 뒤집어졌던 기억, 크게 뛰어올라야 그나마 운 좋게 꺾을 수 있었던 처마 밑 고드름 훌쩍훌쩍 누런 콧물을 섞어 어금니로 깨물어가며 그도 먹다가 얼어 지치면 벗짚발로 엮어 옥수수 타래 옆에 걸어두고 실로폰 소리타작에 신라의 달밤을 부르던 기억들. 하나같이 더듬어 풀어쓰자면 아리삼삼 꿈결 속의 달콤한 이야기(추억) 인데도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싶게 가물가물 잊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분주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래 분주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것과는 격이나 궁합이 맞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보기에 분주는 “항시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가볍
다”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면에서 필자가 특별히 분주를 언급하며 따지고 있는 이유는 분주를
빌미삼아 우리의 생각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 정체성에
관한 의미를 바로 되짚어 두기 위험에 있습니다. 곧 기독교가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고 세상 앞에 크리스천이 감당하여야 할 마땅한 사명과
소명의식 또한 흐려져 가고 있는 형국에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분주의
의미를 곱씹어 이로부터 예배의 본질을 재차 바로 정립해 보는 것도
꼭이나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보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에게 명하신 예배의 유래와 본질은 모름지기 출애굽(出埃及, Exodus) 이후
시나이광야(Sinai Wilderness) 유랑시절에 첫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

시나이광야 유랑시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예배는 죄 사함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곧 번제[燔祭, 전제(全祭), Burnt Offering, 'olah, אֹלָה], 소제[素祭, 곡제(穀祭), Meat Offering, Minchah, מִנְחָה], 화목제[和睦祭, 구제제(救濟祭), 감사제(感謝祭), 수은제(酬恩祭), Peace Offering, Shelamim, שְׁלָמִים], 속죄제[贖罪祭, 정죄제(淨罪祭), Sin Offering, Hatat, חַטָּאת], 속건제(贖愆祭, Reparation Offering, 'asham, אֲשָׁם) 등이 그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제사에서의 희생제물은 모두가 제단에서 불살라져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데, 이 경우 희생제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선취(選取)된 일련의 대속물(代贖物, Redeem)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 예배하려는 자는 희생제물을 마치 자신이 불타는 것처럼 제단에서 불살라 그 향연(香煙)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통칭하여 번제(燔祭)라고 합니다.

번제의 히브리 원어는 올라('olah, אֹלָה)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뜻은 음운과도 같이 “올라간다”는 의미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올라’는 때때로 수은제(酬恩祭) 또는 화목제(和睦祭)라는 단어와도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올라’는 ‘하나님과의 평화적인 관계 속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레 03).

이상의 제사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형식과 절차 및 규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레 01-07), 본 기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하고자 할 때, 그 표시로서 제단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각양의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번제를 위한 제단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다듬지 않은 채 쌓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히 제단에 계단을 두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전형적(典型的)인 제사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제단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전형적’이라고 함은 당시 이스라엘이 제사에 참여(參詣)할 때, 특별한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평상시 복장 그대로 제사에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전형적인 제사는 이후 형식적(形式的)인 제사로 차츰 변모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제사는 전형적인 제사와는 달리, 계단의 구축은 물론이고 절제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또한 이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어김없이 특별한 의복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전형적인 제사는 자연석에 흙을 개어 제단을 구축하고 양(羊)이나 소(牛)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전문적(專門的)인 제사와, 누구라도 자유로이 평상의 생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통상적(通常的)인 제사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이상의 모든 제사는 제사법전(祭祀法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예배의식에 따라 정해진 대로 어김없이 드러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분주한 생활가운데 구약시대 제사율법을 전하고 있는 레위기를 접할 요량이면, 대체로 고리타분하고 퀴퀴하기 그지없는 기록으로 치부될 수 있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보

아 성경통독의 과정에서 레위기의 기록을 접할 때면 뉘나 다름없이 그냥 건성으로 건너뛰거나 대충대충 읽어 넘겼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레위기를 바로 보아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바로 되새겨 두는 것도 일말의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짧은 지면상이나마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접하는 중에 올곧은 의미를 바로 새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보기에, 레위기의 기록은 ‘죄의 처리’(곧 죄 사함)를 1차적인 문제로 전면(前面)에 앞세워 두고, 이에 결부된 ‘죄’는 2차적인 문제로 뒤를 잇게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진 않겠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직관(直觀)’은 ‘죄의 인식(認識)’에 앞선다는 심오한 뜻을 밝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란 무엇일까?”라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까?”라는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곧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줄까?”하는 것이 “무엇을 죄로 삼을까?”에 앞선 문제이었을 것임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죄 사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사율법(祭司律法)을 맨 앞에 두어 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죄 사함을 중개하는 제사(祭司)의 직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서 일관하고 있는 제사율법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죄 사함의 방법을 미리 엿보인 후에, 비로소 “죄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음은 레위기 구성체계에 담긴 심오한 신앙적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기에 본래부터 죄는 사함받기 이전에 우선 행하여지거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곧 지은 죄가 죄 됨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 죄를 깨닫게 되거나 또는 용서받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극히 모순된 것 같으나,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다가, 끝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 모순 아닌 순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통 이와 다름이 없었고, 후대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추상같은 사실입니다. 이 또한 레위기의 구성체계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깊고도 심오한 신앙적 교훈일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곧 ‘바른 것’(聖潔)과 ‘더러운 것’(不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율법과 규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성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열납(悅納)하심에 있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죄가 죄로써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 레위기의 기사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깊고도 심오한 곳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례로서 자리매김 되었고 또한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우리의 선부른 생각은 겸손히 뒷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기 그지없고 그것도 형식과 절차에 있어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케케묵은 제사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유교에서처럼 홍동백서(紅東白西), 두서미동(頭西眉東), 면서병동(麵西餅東) 등과 같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행하기 힘들고 알 수도 없는 골치 아픈 규례를 명하셨던 것일까요?

화제를 비약하여, 태곳적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동산에 두시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따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요? 이 또한 골치 아픈 제사규례를 두신 것과 매한가지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자문(自問)에 대한 해(解)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레위기는 지금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예배의식을 보다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케 하여, 그 결과로서 우리의 신앙적 지평을 다시금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일말의 계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 신앙적 유익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가 바로보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사람(이를테면 이스라엘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특단의 배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규례(곧

선악과나 제사율법)를 두신 것은 그들이 무시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을 이 같은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대신해 두시고자 함에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곧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제사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배려하시고자 함에 있었다고 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처럼 방법과 표현을 낱알이 일러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창조된 우리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 같은 방법으로 듣고 보시고자 하셨던,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바꾸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하느니라”(행 17:24-28)

본래 ‘의식이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때, 무릇 정신이 등한시되고 형식이 과중되게 되면, 뜻 없는 의식으로서 또 다른 의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곧 본래의 참된 정신이 이로 인하여 어지러워지고 또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¹⁾에 비추어 후기의 예언자가 적(敵)으로 삼아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또한 레위기의 여러 제사의식이 예언자의 논란의 표적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부를 생각과도 같이, 레위기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또한 나타나고 있는 정신을 형식적이고도 케케묵은 일련의 복잡한 의식 자체로 치부하는 것은 결단코 경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Augustinus De Cathecizandis Rudibus*, 354-430)은 “신약은 구약에 감추이고, 구약은 신약에서 나타난다”(Novum Testamentum in Vetere latet, Vetus Testamentum in Novo patet)고 이야기 하였지만, 레위기²⁾에 감추어져 있는 신인간(新人間)은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한 순간에 깨끗이 자취를 감추고야 맙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다름 아닌 신약의 히브리서(Hebrews)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를 배경에 두어야 비로소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레위기의 제사율법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어김없이 성취되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踰越節, Passover)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양의 뼈를 어느 것 하나 꺾지

말 것을 규례로 두셨는데(민 09:12), 이는 신약에 이르러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인들은 다리를 꺾어 부러뜨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규례에 따라 온전히 그 몸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신약에 이르러서도 어김없이 지켜지고 행하여졌으며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의 기록입니다.

“...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민 09:10-12)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요 19:30-36)

그렇다면 위 말씀에 비추어 레위기를 어거스틴의 말에 접목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레위기에 숨어 있고,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이상의 관점은 레위기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이 그렇다는 것이지, 달리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율법 하나하나가 곧이곧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격다짐으로 모든 것을 꿰어 맞추려는 어리석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제사형식과 절차는 신약에 이르러 영적 예배의 형태로 또 다시 변모하기에 이릅니다. 곧 하나님은 영(靈)이신 까닭에 예배하는 자의 ‘올라’는 ‘영’과 ‘진리’로 바뀌었고 그러기에 어떠한 화목제나 수은제도 이후로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약의 영적인 예배는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에 비하여 형식과 절차에 있어 현격하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남겨진 제사형식이 하나 있기에, 그것은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Living Sacrifices)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이전보다도 더한 진정성과 엄숙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정도를 너무도 쉽게 이해하고 또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지금의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에 비하여 형식과 예배의식이 복잡하지 않아 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외견상 그 모습을 지켜봄에 있어 너무도 경망스럽고 깊이와 내용이 얕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하 곰곰이 새겨보고 따져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참혹한 형벌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 이를 기리고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바로 고백하기 위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달리 이를 것도 없이 가슴을 찢어야 하지 않을까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회의 눈물을 앞세워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마르는 것을 염려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땅 바닥에 두 무릎을 피나게 꿇어야 하지 않을까요? 번제단(燔祭壇)에 불살라지기 위해 끌려가는 희생제물이 본래 우리였다면 모름지기 비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숙연한 마음을 앞세워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한의 죄를 통렬히 자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꿇어 엎어져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의 영달(榮達)을 하염없이 구하고, 잠깐 왔다가는 허무한 세상에서 왜 필요한지도 모르게 온갖 부귀영화의 날날을 다만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같은 우리의 패악한 모습을 번제단의 향연(香煙) 뒤 휘장막 지성소(至聖所, Holy of Holies, *Kodesh ha-Kodashim*, ~~성소~~ ~~성소~~)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실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 금할 길이 없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가슴에 담아 기뻐할 수 있음은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있고 난 이후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긴 크리스천이라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도말(塗抹)되어졌음이 분명할 터,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남겨진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고 또한 그 결과로서 가슴을 찢는 회개와 참회가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참회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또 다시 이 같은 구원과 기쁨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담긴 추상같은 함의(含意)이자 지금의 우리에게 다름없이 요구되고 있는 신앙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분주함을 재차 논해봅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배의 본말(本末)을 전도(顛倒)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왜곡(歪曲)하거나 호도(糊塗)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 시대의 분주함에 덧붙여 예배를 그야말로 시끄럽고 소란하며 가볍기는 물론이고 어수선 한 것들에 맞추거나 맞들고 있다고 봅니다.

뜻 모를 외침은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도 옆 사람의 부르짖음이 귓전에 들릴 요량이면 이 보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 하며, 평음의 악기를 죄다 동원하여 두드리고 패대는 것은 물론, 엄숙한 설교제단을 아예 치우고 그곳을 아예 수선스러운 무대공연장으로 변용(變容)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세상의 분주함을 그대로 옮겨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필자는 지금 이 지면에서 그러한 예배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고 없음을 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같은 예배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바로 되짚어 두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시끄럽고 소란하며 어수선했던 것을 좋아하셨다면 또 모를 일이겠지만, 앞선 레위기의 제사규례에 비추어 작금의 예배가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며 어수선했다는 그 자체를 문제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프로그램은 참으로 다종(多種)합니다. 형식도 참으로 다양(多樣)합니다. 신앙을 계도(啓導)하기 위한 각양의 교육프로그램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참으로 정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보기에 지난 날 우리 어머님께서 보여주셨던 후미진 골방에서의 눈물어린 기도와 통한의 기도는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감생심 필자는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 또한 우리 모두 함께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어머님 자신은 물론이고 때마다 세상 죄에 허덕이며 스올의 강가를 헤매고 있는 죄 많은 남편과 자식, 인척과 가문,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앞에 두고 교회 한 귀퉁이 후미진 곳에서 침잠(沈潛)이 흐느끼며 가슴을 찢으셨던 새벽제단에서의 우리네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깎지 낀 두 손에 피멍들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안타깝게 애쓰셨던 우리네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백 원짜리 몇 장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 주일헌금을 예비하고, 흰 소복으로 부활절을 맞으셨던, 그때 예배당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만을 말없이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우리네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신앙을 움켜쥐고 간직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억들의 주인이자 산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머님께서 후사(後嗣)된 우리로 하여금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매일 같이 들려주셨던 찬송이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570장), ‘예수 께로 가면’(565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564장), ‘예수 사랑하심을’(563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560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568장) 등의 찬송가가 아니었던가요? 이 모두가 당시 교회 유년주일학교의 선생님께서 일컫던 반사(班師)의 손을 붙잡고 불렀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동요와도 같은 찬송이 아니었던가요?

바로보기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와 후사된 우리의 찬송 속에서 분주함이 있었습니까? 뜻 모를 외침이 있었나요? 세상의 기복(祈福)이 있었습니까? 귀청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나 또한 옆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었나요? 평음의 악기가 있었습니까? 제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노과심에 이 같은 필자의 회상을 대하며, 그 누구는 지금의 세상이 어느 뎡데 호랑이가 그것도 고속버스 급연석에 앉아 담배피던 시절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들춰가며 변화된 이 시대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느냐며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히 이 같은 말을 입에 담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주문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필자가 그 누구에게 되묻기를, 우리의 후세들에게 앞서 그려보았던 지난날의 추억으로서 추석범의 흰색운동화, 논둑 밑 부엌, 처마 밑 고드름, 신라의 달밤을 이야기하던데, 그들이 그 누구를 향하여 애니광도, 넷마블도, 리니지도, K-POP도, 타요도 모르는 케케묵은 사람이라며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아리삼삼 했던 추억을 뭉개고 지우시렵니까? 레위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 비추고 있는 저 깊고도 심오한 신앙의 세계 또한 그렇게 뭉개고 지우시렵니까?

재차 되묻기에 그 누구는 지금까지 죄로 얼룩진 인생과 다가올 인생을 염려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의 솟구치는 회개와 참회의 고백을 연발해 보셨습니까? 말라가는 눈물이 다할 것을 염려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회자복 해 보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소원해 보셨습니까?

그 보다는 험한 세상을 지쳐감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앞세워 두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자 그래서 내가 남보다 앞서가고자 이를 위해 무시로 하나님께 졸라댔던 것이 그간의 기도제목이 아니었나요? 아니 그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감싸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에 그간 줄곧 부르짖고 소리높여 외쳐대지는 않았는지요?

필자가 여기서 통렬히 지탄하고 있는 그 누구로서의 대상은 필자를 포함하여 이 글을 접하는 우리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오늘날 기독교의 위태한 형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의 본말을 전도하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교회(교회지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패악한 시대의 흐름을 경계하고 바로 볼 수 있게 계도하기는커녕 그에 편승하여 무작정 따라가고 순응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분주를 예배의 챗바퀴에 끌어 담고자 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남보다 보다 크게 확장하기 위하여, 세상 앞에 교회의 지위와 자신(소위 교회지도자)의 명예를 끝쳐세우기

위하여, 셀 수도 없는 수천의 수만의 신도를 거느려 교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필자의 눈에는 참으로 딱하게 안타깝게만 보일 뿐입니다.

반론의 여지없이, 교회는 세상누구에게나 편안한 신앙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치 우리의 본향과도 같이 포근하여야 합니다. 조용하고 깊은 심오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가(Sydar)의 우물과도 같이 신령한 곳이어야 합니다(요 04:07, 09-14). 나아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러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보기에 자랑스러운 나실인(*Nazir, Nazirite*, נָזִיר, '성별한다'는 뜻으로 대개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자를 말합니다)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 우리 교회의 한 중심에 레위기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목회자가 깊은 영성과 엄숙한 신앙의 텃밭위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들판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앞에서 얼마나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러기에 목회자는 결단코 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적한 오솔길을 뒷짐 지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도량있고도 깨끗한 신앙의 선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지막하고도 빠르지 않은 목소리로 그리고 엄숙하고도 신실한 모습을 비추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마음 속 깊은데서 솟아오르는 간절하고도 영성 깃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구하고 있는 기도하는 목회자, 저들에게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안타깝게 중보(仲保)하고자 애쓰는 잔잔한 목회자가 그리운 때입니다. 필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 목회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특권이자 의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는 엄숙하고도 장엄하여야 합니다. 회개와 참회를 앞세워 두고 있는 까닭에, 경건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준엄(峻嚴)하기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와 예배가 있다면, 십중팔구 그곳의 교회와 목회자는 무척 분주할 것이 자명하고, 그러기에 그곳의 예배는 시끄럽고 소란하며 어수선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고즈넉한 산사(山寺)의 풍경(風景)소리, 흥건한 땀으로 뒤범벅이 된 법당에서의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禮), 잔잔히 돌아가는 묵주(默珠)소리, 찬연하게 타오르는 산사의 향(香), 가톨릭 성당(聖堂)의 은은한 향연(香煙), 눈감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그려보기에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와 비교하여 그나마 그들 종교는 세간의 근심과 걱정에서 탈피하여 이 시대에 교세(教勢)를 면면히 확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광적으로 흥분한 말세의 적그리스도 예배, 박수무당의 굿판, 살(煞)을 벗겨낸다면 미친 듯이 울부짖는 복술가들의 무속(巫俗), 프리바(Meribah, Massah)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떠들어 댄 이스라엘 등을 떠올려 볼 요량이면, 그곳에는 조용함보다 온통 시끄럽고 정신없는 혼란함만이 요동(搖動)치고 있거나 요동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보기에 교회는 조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고도 장엄하여야 합니다. 항시 경건하고 준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에로의 참여(參詣)는 번제단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리라는 마음으로 거룩하여야 합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조용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게 우뚝 서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필경 레위기파를 계승한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이 그곳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깨끗한 신앙의 선비들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의 시끄럽고 분주한 본성이 자리를 잡게 하거나 잡아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래 세상의 물은 시끄럽고 분주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 할 때, 이러한 세상물꼬를 교회에 터놓아서는 결단코 곤란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한 아늑하기 그지없는 교회의 차분함을 세상 앞에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주는 죄가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분주는 시끄러움과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비추어 ‘올라’(olah, 올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배의 자세라고 보아 그 참된 의미를 이 지면의 끝에 바로 새겨 둡니다.